

부처님 땅 인도에
1천여년만에 다시 싹트는 불교!
인도불교부흥에 한국불자들의 염원을 전합니다.
인도불교동기추진위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 (예금주: 인도불교)



◇6일 대전 건양대병원 소아과병동에서 동학사승가대학명우(왼쪽)·지업 스님이 어린이 환자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기자



◇동학사 스님들은 불교에 관심을 갖는 환자들에게는 염주나 불서를 선물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한다.

“우리가 병실 문 열면 고통의 문 닫히죠”

사회봉사로 불교공부 회향

인턴 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



“동학사 스님들과 건양대병원 불자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불교 자원봉사의 모범이 되길 기원합니다.”

논산 고척사 창건주인 배봉순(대자심, 지난해 96세로 입적) 보살의 사위인 김희수(76) 건양대 총장.

환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병원 법당 ‘건양사’를 만든 김 총장은 “평생 약사여래 기도를 하신 장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의료사업을 하고 있다”며 불자들의 병원 자원봉사에 고마움을 표했다.

13년 전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건양중, 고등학교와 건양대학교를 설립하고 2000년 건양대병원을 개원한 김 총장은 “사회 봉사가 바로 불교 공부의 사회적 회향”이라면서 불교계의 의료복지 사업 확대를 주문했다.

학교에서 공초 등 쓰레기를 줍다보니 ‘공초 할아버지’로 불리우는 김 총장은 세세하게 환자들과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살피는 다정다감한 불자다. 언제나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주 금요일 직접 안과 진료도 한다. 장모님의 기도덕택에 집안에서 10명의 의사가 나왔다는 김 총장은 부인 김영이(70) 보살과 함께 수시로 고척사를 찾아 약사여래의 증생 구제 서원을 가슴에 되새기고 있다.

동학사 학인스님들 건양대 병원서 봉사

“안녕, 꼬맹아! 스님 침 보니?”

“응, 스님은 왜 머리카락이 없어?”

6일 대전 건양대병원 5층 소아과병동. 매주 목요일은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일초 스님) 학인 스님들이 건양대병원을 찾는 날. 14명의 학인 스님들이 2인1조로 환자 위문봉사에 나선 가운데 지업, 명우 스님이 네 살짜기 신대수 어린이와 인사를 나눈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스스럼이 없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코를 다쳐 왔었다는 대수는 회색 승복을 입은 까까머리 누나들의 빨간 얼굴이 마냥 신기하게 뚫어지게 쳐다본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한 환자 위문봉사는 일초 스님이 “경전을 통해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나가 실천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사교과(3학년), 대교과(4학년) 학인 중심으로 시작됐다.

병실에서 특별히 설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아픔을 화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쾌유를 비는 자비심이 전해지면서 전법은 저절로 된다. 간혹 불자 환자들은 반가운 얼굴로 스님들을 대하는데, 이들에게는 염주나 부담없는 불교 책을 전달해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한다.

하지만 산중에서 공부하던 스님들이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봉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처럼 병원에서 전도를 해 본 일도 없고, 간병봉사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8층 혈액종양병동에서 막 환자 위문을 마친 자민 스님은 처음 병실 문을 여는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병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일이 너무나 생소해 망설였어요. 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을 함

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니 문득 용기가 났지요. 막상 그들의 애처로운 얼굴을 보니 저절로 말문이 트이더군요.”

학인들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은 ‘문없는 문’(無門)을 열어제끼는 개심(開心)의 순간과도 같았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라는 생각’(我相)을 쳐부수고 병실 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분별심은

병실문잡이 낮설어 처음엔 망설여 따뜻한 보살핌...정신적 귀의처로 심광사 등 7사찰 신도 매일 봉사

사라지고 환자들의 아픔과 하나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환희심이 다가왔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몸짓이었다. 처음엔 서먹해 하던 환자들도 이제는 친근하게 대해주고, 불교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환자들은 ‘스님 두 분이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할 정도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었다.

동학사 학인들의 이러한 ‘보살되는 공부’는 건양대병원의 배려에 힘입은 바 크다. 신심깊은 불자인 건양대 박희수(76) 총장과 부인 김영이(70) 보살이 병원에 법당 건양사(지도법사 동화 스님)를



◇건양대병원에는 심광사, 대진정사, 고척사 등 7개 사찰 자원봉사팀이 요일별로 안내·세탁 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금강반야원 봉사팀의 바느질 봉사.

이날 병원 법당에서 약사여래불에게 인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한 후 다시 법당에 돌아온 학인들은 “신도들의 보살행을 보면 늘 발심이 된다”고 겸손해 한다. 하지만 동학사 학인들의 보현행원은 건양대병원에만 머물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상당한 연륜을 쌓고 있었다.

98년 3월부터 동학사가 위탁운영하는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에서 이른바 ‘정서 서비스’를 실시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매일 한 번꼴로 학인들이 2인 1조로 무의탁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 말벗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스님들은 말벗뿐만 아니라 청소, 빨래, 목욕 등 가사일도 척척 해놓고 간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명주원을 방문, 불교 동화와 찬불가도 가르쳐주고 있는 학인들은 화성 자제공덕회, 강화도 무애원, 서울 ‘이웃을 돕는 사람들’, 공주 치료감호소, 대화사회복지관 등에는 불교 명절 때마다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봉사활동뿐 아니라, 대교반 스님들은 매주 수요일 대전 교도소 경비교도대를 방문해 ‘생활 법문’을 통한 군포교도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대전=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증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